

폐자원 재활용 목표를 설정
상공부·환경처, 단계별 추진

환경처와 상공자원부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랍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지정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재활용지침을 통합 고시했다.

재활용 지정사업자(종이 제조업, 유리 용기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중점 관리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재사용하도록 단계별 이용목표율을 제시하고 각 해당사업자는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5개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1종 지정사업자(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제품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의 구조 및 재질의 개선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당해 사업자 단체는 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내용을 심사해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하고 상공자원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제2종 지정사업자(금속캔, 합성수지용기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해당제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과 분리수거를 촉진하는 소비자 안내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 적용범위는 금속캔의 경우 94년 2월 50%, 93년 3월 100%로 하고, 합성수지용기는 94년 1~6월 30%, 94년 7~12월 60%, 95년 이후에는 100% 적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각 지정사업자가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의 준수를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재활용 대상 품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9개 품목의 재활용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생공사, 재활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생공사법(안) 국회보사위 통과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김창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보다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 사업법(79년 12월 제정)을 폐지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국회 보사위에 상정, 통과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처는 이 법안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공급 실태조사와 폐기물 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알선을 재생공사가 추진토록 했으며, 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앞장 서도록 했다.

특히 환경처는 전국 쓰레기의 일률적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별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 재활용 시설의 원료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생공사는 우선 재생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 청주, 안동, 담양 등 3곳에 설치된 폐비닐 재생공장에 폐가전제품 파쇄시설, 폐형광 등 파쇄시설 등을 내년부터 가동하는 등 경제성이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는 업체를 대신해 이 분야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재생공사는 또 계절적 요인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재활용 폐기물을 재생, 적기에 이용업자에게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활용 폐기물 비축기지를 별도 설치키로 했다.

[표 1] 단계별 폐자원 이용 목표율

(단위 : %)

재활용지정사업자	중점관리대상사업자	폐자원	1994~95	1996~97	98년이후
종이 제조업	연간 1만t 이상 생산	폐지	47	50	55
유리 용기 제조업	연간 2만t 이상 생산	폐유리	42	47	52
제철 및 제강업	연간 10만t 이상 생산	폐철캔	20	30	4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연간 1천t 이상 생산	페PET 기타	10 5	20 10	50 20

[표 2] 단계별 재활용 목표율

(단위 : %)

재활용부산물		중점관리대상사업자	1994~95	1996~97	98년이후
철강슬래그	고로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t 이상 생산하는자	100	100	100
	제강슬래그		50	80	90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kWh 이상 공급	15	25	35

‘특허심판원 설치’ 의견제시

특허청, 항고심판소 확대 개편

특허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항고심판의 위험논쟁과 관련, 신속 공정 정확한 항고심판을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특허청의 특허심판제도 연구위원회는 구랍 2일 특허심판제도는 행정부 내에서의 상대적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항고심판소를 특허청과 분리, 상공부장관 직속의 특허심판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제도위원회는 이같은 심판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1월중 실수요자인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 특허심판원 설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이 특허심판원에는 법관이 참여하는 합동심판부를 구성, 합의심판제도를 운영하고 기술심판관의 자격강화 및 증원으로 전문성을 갖추으로써 심판관의 자격, 보수, 신분보장을 법관에 준하도록 하며 심판절차도 보다 사법절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공사, 재활용 현장 견학 실시

환경관련 여성단체 대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품이 재생·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재생·활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재생 제품 소비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관련 여성민간단체 회원 1백20여명을 대상으로 구랍 10일 재활용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환경보전

과 폐기물재활용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12개 여성 민간단체 회원 1백20명이 참가한 이번 재활용 현장 견학은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인 HDPE 폐비닐 재생공장인 한국자원재생공사 청주 재생공장과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이류와 유리병이 재생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두산유리(주), 대한펄프(주)를 방문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서 여성 민간단체 회원들은 농촌에서 멀칭용으로 쓰인후 수집된 폐비닐이 건축자재, 주름판, 농기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간원료(Pellet)로 재생되는 과정과 유리병이 색깔별로 분류되어 다시 유리병으로 재생되는 과정, 종이류의 재생과정을 상세히 견학했다.

EPS포장재 재활용 국제협력강화

아시아 8개국 재활용회의에서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KFRA)는 구랍 7.8일 양일간 일본 발포스티렌재자원화협회(JEPSRA)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EPS 포장재 재활용회의'에 참가, EPS 완충포장재에 관한 환경보전 국제협력 협약을 제창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EPS 완충포장재를 포함하여 모든 포장재의 구체적인 재활용률 및 재생 이용된 성분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9%(폐EPS 5만6천톤 발생)로 나타났다.

KFRA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EPS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 아시아지역 전체가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올 3월1일로 예정돼 있는 세계

EPS회의에도 참가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된 '국제 EPS포장재 재활용 협약'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세계 EPS재활용 협약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 타국에 수출된 한국의 전자생활용품 포장재(스티로폴 등)를 일본의 포장재메이커와 제품메이커들이 수거하여 재활용해 주고, 한국시장에 들어온 타국제품 포장재는 국내 업체들이 처리해주는 업계간 환경관련 상호협력 체제를 이루게 된다.

이번 제1회 아시아 EPS 포장재 재활용회의는 스티로폴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EPS 재활용단체와 관련 EPS 메이커가 참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EPS 완충포장재는 원산국에 관계없이 각국 독자의 환경기준에 항상 적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강화하고 신계획을 책정하는 내용을 비롯, 지난해 9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협의된 4개 항목의 실행을 업체에 적극 권장, 홍보키로 했다.

물류협, 권역별 지부 개설

지방물류인 양성 기대

물류관리협회의는 높아져가는 물류의 식 고양과 함께 물류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각 권역에 지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됐던 물류교육 및 세미나, 기타 관련업무가 지방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물류인의 양성이 기대된다.

협회는 이 행사의 첫단계로 부산권에 1월중 지부를 개설할 예정이다.